

1991~2010년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국 우울증 담론의 변화와 그 문화적 함의¹⁾

이현정*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정신질환, 특히 우울증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우울증은 신문이나 잡지에서 심심치 않게 다루어질 뿐 아니라 TV에서 연예인의 소식을 전할 때에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예, SBS뉴스 2011년 5월 27일자). 언젠가부터 기업 사보에도 우울증은 인기 주제로 포함되고 있으며(예, 『롯데마트 사보』 2011년 10월호), 주요 대학들은 점차 학생들의 우울증 검사와 예방을 위한 학내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예, 『경향신문』 2005년 6월 7일자, 조선닷컴 2011년

*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anthrolee@gmail.com

1) 이 논문은 2011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NRF-2011-354-B00066). 이 자리를 빌려 본 논문의 심사를 맡아 주시고 날카로운 비판과 상세한 도움말을 주신 세 분의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연구 과정 중에 여러 번에 걸쳐 고민을 함께 나누어 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 강지연 양에게 특별히 고마움을 전한다.

4월 18일자). 또한 우울증 치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모임들이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 수백에서 수천 개에 이르기까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²⁾

이처럼 한국에서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진 반면, 그러한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명된 바가 없다. 한국 사회 내에 우울증 환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잇따라 높아진 것이 아닌가 하고 막연하게 추측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회적 관심의 증가 원인이 우울증 발병률의 증가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크게 다음 네 가지 문제와 관련된다. 첫째, 현재까지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정신질환 역학 조사가 2001년과 2006년 단 두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 우울증 발병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둘째,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자료를 통해 전국적 규모를 추정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들 통계자료가 대체로 공식적 의료기관이나 보험관리공단의 기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료기관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포괄할 수 없다는¹⁾ 즉, 유병률을 과소평가하게 된다는²⁾ 문제가 있다. 셋째, 우울증의 정의에 대해서 한국 사회집단 간의 의견이 일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과연 누구를 우울증 환자로 지칭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사항들에 덧붙여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다음 네 번째 이유 때문이다. 특히 우울증 환자 수와 사회적 관심이 사실상 서로 무관하지 않으며, 높은 사회적 관심이 도리어 우울증 발병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는 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감소시키고 질병 치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산시

2) 예컨대 2011년 11월 12일 현재, 핵심어 '우울증'으로 검색된 다음(Daum) 카페의 수는 총 1,545개, 네이버(Naver) 카페의 수는 총 520개로 나타난다.

김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많은 개인들이 스스로를 우울증 환자로 인식하고 의학적으로 진단받도록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고려해 본다면,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게 되는 까닭은 단순히 그 질환의 물질적이고 생물병리학적인 근거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요인들이 함께 관여한 결과이다(Shorter 1997; Foucault 1988, 1990; Lane 2007; 이유상 외 1992).

우울증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복잡한 성격을 염두에 두면서, 본 논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는 한 가지 시도로서 특별히 매스미디어 담론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년간 우울증에 관한 주요 일간지 기사 분석을 통해, 매스미디어가 우울증에 대한 한국 사회의 담론을 확장·변화시키는 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그 변화의 성격은 무엇인지 의료인류학의 관점에서 탐구해 보고자 한다.

한국 매스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우울증에 대한 담론 분석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의료인류학적으로 유용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다.³⁾ 첫째,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의 지구화 맥락 속에서 미국과 서유럽

3) 인류학 내에서 담론 연구가 현지조사에 기반한 민족지적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학문적 유효성 문제에 노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적어도 참여관찰이나 심층면접과 같은 현지조사자료가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야 인류학 논문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학문(예컨대 사회학이나 커뮤니케이션학)과의 차이는 무엇이나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사실 연구자 본인은 인류학 연구에서 민족지적 방법의 남다른 가치와 유효성을 스스로 확인해 왔으며 다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류학 연구=민족지학’이라는 도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데, 연구자의 질문과 관심 대상 그리고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인류학자들 역시 본인의 연구에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연구자는 본 담론 분석이 인류학적 우울증 연구의 전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앞으로 진행될 다른 성격의 조사에서는 민족지적 접근방법이 주된 조사방법으로서 사용될 예정이다.

중심의 생의학적 관점과 실천이 비서구 사회의 질병 개념과 치료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가에 주목해 온 의료인류학의 연구 전통 위에 놓여 있다. 학자들은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의 질환과 고통이 점차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맥락과 분리되고 무엇보다 개인의 생물학적이고 화학적인 물질적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해결방법에 있어서도 약물 복용이나 기술적 개입이 절대적 해결모니를 가지게 되었음을 강조한다. 특히 몇몇 학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매개물을 통해 생의학적 관점이 확산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의과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소개되는 의료 정보, 국가기관의 홍보물 그리고 심지어 인류학자들의 연구물과 같은 다양한 텍스트에 대한 담론 분석을 시도해 왔다(예컨대 Lock 1993, 2002; Martin 1987, 1991, 1992, 1994; Treichler 1987; Gravlee and Sweet 2008).

물론 이러한 연구들은 미디어 텍스트의 생산으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과 그러한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여러 집단 간의 정치적 역학을 고려해 온 최근 미디어 인류학의 논의에 빚대어 볼 때(Ginsberg, Abu-Lughod, and Larkin 2002 참조) 지나치게 단편적인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즉 신문기사와 같은 매스미디어 담론을 새로운 가치와 개념을 전달하는—스튜어트 홀에 따르면, “문화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영역을 식민화하는”(Hall 1977: 340)—문화적 도구로서 바라보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구태의연한 접근이며 지금까지 미디어 인류학 내에서 진행되어 온 풍부한 이론적 논의와 방법론적 성찰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질병과 치료에 관한 매스미디어 정보는 독자에게 자못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여타의 미디어 텍스트와 구별될 필요가 있다. 근대 의학 체계의 발전과 더불어,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 방식의 선정은 매우 제한적이고 특수한 교육기관에서 훈련받은 의료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에만 공식적인 권위를 획득해 왔다

(Foucault 2003; Peterson and Bunton 1997). 반면 비전문가 일반인이 개입하거나 판단할 여지는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되거나 부수적이다.⁴⁾ 이러한 현상은 질병에 대한 설명과 치료방법이 고도의 전문화된 과학적 실험과 기술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강지연 2011). 이처럼 질병과 치료에 대한 지식이 특정 전문가 집단의 배타적 권위에 기대어 있는 상황 속에서, 매스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의료 정보는 개인의 자기 신체에 대한 삶의 욕구를 거의 유일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며, 따라서 별다른 의심 없이 쉽게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그 특성상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정신질환자와 접촉할 기회가 드물고 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따로 습득할 기회가 일생 동안 거의 없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관한 한 매스미디어 정보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Seale 2003; 김성완 외 2000). 따라서 한국 사회의 우울증 개념에 대한 실질적이고 중요한 영향요인으로서 매스미디어 담론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것은 설령 독자의 다양한 반응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그 자체만으로 의의가 있다.

둘째, 우울증에 관한 한국 매스미디어의 담론을 분석하고 있는 본 논문은 인류학뿐 아니라 정신질환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대해서 질문해 온 다양한 분과 학문과의 소통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실천적 성격을 지닌 의료인류학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그래

4) 최근 한미 FTA 의료민영화 논쟁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는 의료 지식과 서비스를 단순히 구매자의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소비 상품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 개인은 다른 상품 구매자와 별 다르지 않는 소비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집단 간 차별적인 접근성의 문제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환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의료 지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담당 전문가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일단 기관과 담당 전문가가 정해지고 나면, 본인의 고통이나 질환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방법은 개인의 영역을 벗어나며 의료기관 및 전문가 집단의 결정에 온전히 귀속된다.

프로 예시할 수 있는 빈도 분석을 시도하고,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개발한 분류 유목을 활용한 것은 그러한 분과 학문 간 소통의 방식을 고민한 결과이다.

정신보건 관련 전문가들은 거의 대부분 현대사회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스미디어에 의해 크게 영향 받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예컨대 이유상 외 1992). 이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고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매스미디어의 보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절한 정책적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를 위해 매스미디어 담론 분석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신보건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행된 매스미디어 담론 분석은 대개 3년에서 5년 정도의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주로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정도를 가늠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김성완 외 2000; 이충순 외 1996; Coverdale et al. 2002; Orey and Fenton 2004; Stout et al. 2004; Wahl et al. 2002). 이들 연구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신문이나 텔레비전 보도가 정신질환자들의 위험하고 폭력적인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정신질환자들을 마치 범죄자와 동일시하는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켜 왔다고 강조한다. 그 결과 정신질환자들은 자신의 질환을 숨김으로써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얼마든지 사회생활이 가능한 미미한 수준의 질환을 겪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사회에서 고립되어 왔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정책 마련을 위해서 매스미디어의 편견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의학적 관점에서는 의미 있는 작업일 수 있으나, 인류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접근이 갖는 논의의 한계는 매우 명백하다. 매스미디어 담론에서 나타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시각에 집중하는 연구들은 이미 생의학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신과적 개념 및 치료방식을 ‘진리’로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관심은 매스미디어가 그들의 관점에서 과연 ‘옳은’ 정보

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을 뿐, 인류학적 관심처럼 매스미디어 담론이 어떤 특정한 사고 체계와 실천방식이 확산되는 장(field)이자 문화적 기제로서 역할하고 있는가에 놓여 있지 않다. 따라서 연구도 대체로 짧은 몇 년을 대상으로 공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장기간 동안의 변화 추이를 살필 필요가 없었다.

본 논문은 매스미디어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정신보건학적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우울증에 대한 부정적 편견 여부에 주목하기보다는, 매스미디어가 우울증에 대한 특정한 문화적 관념을 전달하고 확산시키는 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난 20년간을 대상으로 통시적 관점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비록 매스미디어 담론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본 논문은 제기하는 질문이나 연구대상의 설정 그리고 분석의 시각에 있어서 매스미디어를 다루는 다른 학문 분야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인류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바는 크게 다음 세 가지 항목이다. 첫째, 지난 20년간 우울증에 관한 보도는 양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여 주는가 그리고 보도의 양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기사 분석 수준에서 파악 가능한)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지난 20년간 우울증 보도 기사의 성격은 점차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셋째, 기사 내의 생의학적 연구결과나 정신의학전문가 의견은 우울증 보도의 성격 변화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빈도 분석의 결과를 표와 그래프를 통해서 제시하면서 기사 수준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간단히 살펴본 뒤, 이후 질적 분석을 통해 발견한 문화적 함의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1991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다섯 개 주요 일간지(조선, 동아, 국민, 경향, 한겨레)의 전체 기사 중 제목에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사를 따로 선별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주요 일간지 선별은 먼저 지정된 20년 동안의 기사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신문사 중에서 전국의 구독률 순위⁵⁾에 따라 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동아, 국민, 경향, 한겨레의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기사통합검색 서비스(KINDS, www.kinds.or.kr)를 이용하였다. 조선일보의 경우 KINDS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사 자체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사검색 서비스(srchdb1.chosun.com)를 이용하였다.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조선, 동아, 국민, 경향, 한겨레신문에서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포함하고 있는 기사는 총 960건이었다. 그 중 ‘개(동물) 우울증’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사 2건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기사는 총 958건이었다.

기사 분석을 위해서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인류학자의 텍스트 분석에 유효성이 검증되어 온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활용한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방법을 따라 수행되었다(Bernard 2002). 또한 질적 분석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빈도 분석이 사용되었으며, 빈도 분석의 결과는 시기별 흐름에 따라 <표> 또는 [그림]으로 처리하

5) 한국 ABC협회가 2010년 11월 발표한 전국 종합일간신문 발행부수 내역에 따르면, 조선일보(184만 4천 부)가 1위, 중앙일보(130만 9천 부)가 2위, 동아일보(128만 9천 부)가 3위, 국민일보(29만 5천 부)가 4위, 경향신문(29만 2천 부)이 5위, 한겨레신문(28만 1천 부)이 6위, 서울신문(17만 부)이 7위, 문화일보(16만 2천 부)가 8위, 세계일보(8만 5천 부)가 9위이다(www.kabc.or.kr 참조). 발행부수 순서에 따르자면,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선정되어야 하겠으나 중앙일보의 경우 KINDS 서비스에서 다루지 않고, 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유료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어서 본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였다. 분석을 위해서 각 기사는 총 15가지의 주요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형식으로 Excel 2007을 이용하여 연도 및 항목별로 코딩되었다.⁶⁾ 코딩을 위한 유목들은 정신질환 관련 미디어 연구에서 사용해 온 분류 개념을 차용하였으며(조수영·김정민 2010 참조), 몇 가지는 필요에 따라 연구자가 추가적으로 생성하였다(부록 1) 참조.

3. 연구결과

1) 우울증 보도의 빈도 추이와 유명인 언급의 상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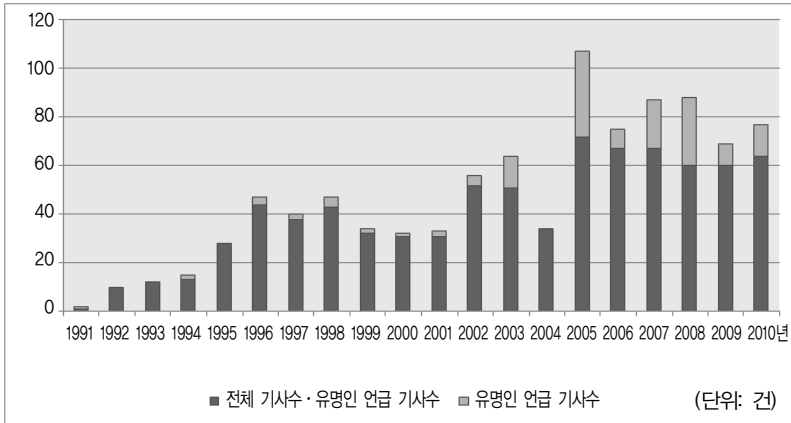
다음 <표 1>은 1991년부터 2010년까지 매해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포함된 기사’(앞으로는 간단히 ‘우울증 기사’로 표현)의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1]은 <표 1>의 수적 추이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표 1> 1991~2010년 우울증 기사 수 및 유명인 사례 포함 기사 수

(단위: 건)

연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우울증 기사수	2	10	12	15	28	47	40	47	34	32	33	56	64	34	107	75	87	88	69	77
유명인 포함 기사수	1	0	0	2	0	3	2	4	2	1	2	4	13	0	35	8	20	28	9	13

6) 지면상의 제약으로 인해, 본 논문에서는 전체 15가지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 중 일부분만을 다룬다.



[그림 1] 1991~2010년 우울증 기사 수 및 그중 유명인 언급 기사가 차지하는 정도

[그림 1]의 막대에서 보다 밝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우울증 기사 중에서 특별히 유명인이 언급된 기사의 비율이다. 그래프를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지난 20년 동안 우울증 기사의 수는 해마다 변동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에서 우울증에 관한 대중적인 관심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데 매스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암시한다.

<표 1>과 [그림 1]을 통해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우울증 기사의 증가가 연속적으로 꾸준히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몇 번의 계기를 통해 단절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뚜렷하게 드러나는 계기는 1996년과 2005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울증 기사 수가 다섯 개 신문사를 통틀어 채 20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1995년도 28건에 이어 1996년도에 47건으로 갑자기 양적 증가를 보이더니, 2004년도까지 우울증 기사 수는 평균 46건(최소 28건, 최대 64건)의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후, 우울증 보도는 2005년을 계기로 또 한 번의 두드러진 수적 증가를 보인다. 2004년에 기사 수가 총 34개였던 것에 반해, 2005년도에는 무려 107개로 증가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그러한 단절적 증가를 만들어 낸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가능하다. 그리고 적어도 2005년의 경우, 과연 유명인⁷⁾의 자살사건과 그에 대한 기사 보도가 우울증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키고 이후 우울증 관련 기사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도록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1> 및 <그림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실 유명인에 대한 보도는 1994년에 처음 등장하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울증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폭발적 관심을 이끄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대비하여, 2005년의 유명 연예인 이은주 씨의 자살사건은 그 이후 우울증에 대한 기사의 수를 늘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적어도 다른 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을 계기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우울증 기사 수는 평균 84건(최소 69건, 최대 107건)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2005년 이전의 시기에 비해 무려 2배에 가까운 숫자이다. 또한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기간의 높은 우울증 기사 빈도는 특히 유명인에 대한 사례 언급이 많아진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⁸⁾

2) 우울증 기사의 성격 변화: '사건 보도' 중심에서 '정보 제공' 중심으로

아래의 <표 2>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매해 우울증 기사들이 각각 얼마나 '사건 보도'나 '정보 제공'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신문기사를 이처럼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접근방법에서 차용해 온 것이다(조수영·김

7) 본 연구에서는 유명인을 연예인이나 정치가 또는 경영인으로 한정시켰다. <부록 1> 질문 7-1 참조.

8)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기사화된 연예인으로는 2007년도 가수 유니와 탤런트 정다빈, 2008년도 탤런트 안재환과 최진실, 2009년 탤런트 장자연, 2010년 탤런트 최진영, 박용하 등이 있다.

정민 2010 참조). 또 [그림 2]는 <표 2>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으로, 짙은 색 막대기는 ‘사건 보도’의 성격을, 옅은 색은 ‘정보 제공’의 성격을 띤 기사의 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사건 보도’라 함은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가 저지른 범죄사건이나 우울증 환자 관련 법원 판결 소식 그리고 유명인의 우울증 발병 기사와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기사들은 우울증에 대한 정보를 다소 포함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 기사 작성의 일차적 목적이 독자들에게 특정 사건을 보도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일회성을 띤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정보 제공’이라 함은 기사 전달의 첫 번째 목적이 우울증 질환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는 기사들을 말한다. 이 범주에 속한 기사들은 우울증 증상에 대한 서술이나 유사 질환과의 판별 기준 제시(질병에 대한 정보), 효과적인 치료법이나 개인의 극복 사례에 대한 언급(치료에 대한 정보) 그리고 예방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예방에 대한 정보)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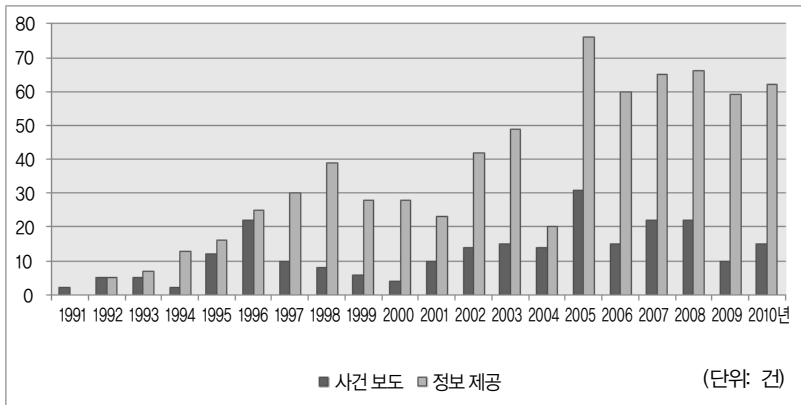
<표 2>와 [그림 2]로부터,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사건 보도’와 ‘정보 제공’ 성격의 우울증 기사 수가 전반적으로 모두 증가한 반면, 특히 ‘정보 제공’ 기사 수는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사건 보도’와 ‘정보 제공’ 기사 수 사이의 비율이다. 같은 해의 짙은 색과 옅은 색 막대기를 비교해 보면, 1996년까지만 해도 대체로 ‘사건 보도’의 기사는 ‘정보 제공’의 기사와 그 양적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1997년부터 전체 우울증 기사에서 ‘정보 제공’ 기사 수는 ‘사건 보도’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며, 그 차이는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4배에 이른다. 앞서 우울증 기사 수의 변화 추이에서([그림 1]), 1996년이 우울증 기사 수가 대폭 증가하게 되는 시기로서 나타났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1997년부터 특별히 ‘정보 제공’ 기사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매스미디어가 우울증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이해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것을 암시한다.⁹⁾

〈표 2〉 연도별 ‘사건 보도’와 ‘정보 제공’ 성격의 기사 수

(단위: 건)

연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총합
사건 보도	2	5	5	2	12	22	10	8	6	4	10	14	15	14	31	15	22	22	10	15	244
정보 제공	0	5	7	13	16	25	30	39	28	28	23	42	49	20	76	60	65	66	59	62	713
총합	2	10	12	15	28	47	40	47	34	32	33	56	64	34	107	75	87	88	69	77	957



[그림 2] 우울증에 관한 ‘사건 보도’ 기사와 ‘정보 제공’ 기사 빈도수 비교

9) 본 논문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할 때, 결코 매스미디어가 독자적인 영향, 다시 말해 한국 사회의 다른 기관이나 다양한 집단의 관여와 전혀 무관하게 독립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연 어떤 기관이나 집단이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끼쳤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신문기사 텍스트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문기사 텍스트를 넘어서 하나의 사회기관으로서의 매스미디어 그리고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관여해 온 다양한 사회 집단, 기관 및 제도의 문제는 앞으로 수행될 현지조사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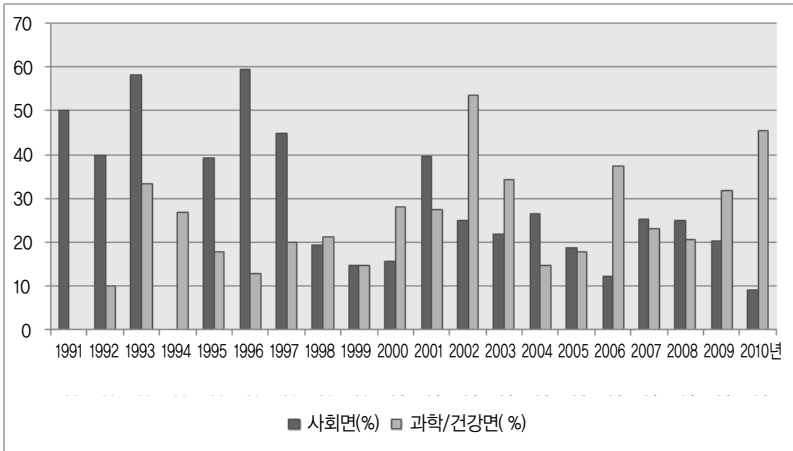
한편, <표 3>과 [그림 3]은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우울증 기사가 각 각 신문의 전체 지면 중 어떤 면에 소개되었는가를 분류한 뒤, 그중 사회면과 과학/건강면 두 개의 결과를 빈도와 백분율로 비교한 것이다 (<부록 1>의 질문 1 참조).

<표 3> 사회면과 과학/건강면에 보도된 우울증 기사 수와 백분율의 연도별 비교¹⁰⁾

연도	전체기사 수(건)	사회면(건)	사회면(%)	과학/건강면(건)	과학/건강면(%)
1991	2	1	50.0	0	0.0
1992	10	4	40.0	1	10.0
1993	12	7	58.3	4	33.3
1994	15	0	0.0	4	26.7
1995	28	11	39.3	5	17.9
1996	47	28	59.6	6	12.8
1997	40	18	45.0	8	20.0
1998	47	9	19.1	10	21.3
1999	34	5	14.7	5	14.7
2000	32	5	15.6	9	28.1
2001	33	13	39.4	9	27.3
2002	56	14	25.0	30	53.6
2003	64	14	21.9	22	34.4
2004	34	9	26.5	5	14.7
2005	107	20	18.7	19	17.8
2006	75	9	12.0	28	37.3

10) <표 3>에서 백분율 자료는 여러 가지 신문 섹션 중에서 오로지 사회면과 과학/건강면만을 선별하여 전체 기사 수에 대한 백분율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항목의 합산이 100%가 될 수 없다. 지난 20년간 우울증에 관한 기사들은 이 두 가지 섹션 외에도, 사실/칼럼, 문화/연예, 생활/여성, 경제, 국제, 지역 등 다양한 섹션 속에서 다루어졌으며 이 부분의 자료는 지면 관계상 생략했다.

2007	87	22	25.3	20	23.0
2008	88	22	25.0	18	20.5
2009	69	14	20.3	22	31.9
2010	77	7	9.1	35	45.5
총합	957	232	24.2	260	27.2



[그림 3] 사회면과 과학/건강면에 보도된 우울증 기사의 연도별 백분율 비교

[그림 3]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크게 양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양 시기 간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 준다. 즉 1990년대 동안에는 주로 우울증 기사들이 사회면을 중심으로 소개되었다면,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특히 2002년을 기점으로) 점차 과학이나 건강면에서 다루어지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사회면에 소개되는 기사 수는 비율상 점차 줄어드는 반면, 과학/건강면에 소개되는 기사 수는 점차 증가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우울증 기사의 성격이 ‘사건 보도’로부터 ‘정보 제공’의 성격으로 점차 변화되는 현상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여겨진다. 우울증 환자가 저지른 범죄기사나 법원 판결과 같은 ‘사건

보도'들은 대체로 사회면에서 다루어지는 반면, 우울증 질환의 특성이나 치료 및 예방방법과 같은 '정보 제공'은 주로 건강이나 (건강면이 따로 할애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과학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3) 생의학적 관점의 확산과 정신의학 관련 전문가의 기여

연구자는 한국 사회의 매스미디어 담론 속에 우울증에 대한 생의학적 관점이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우울증'을 제목에 포함한 기사를 대상으로 다음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첫째, 기사가 최근의 생의학적 연구결과를 포함하고 있는가. 둘째, 기사는 우울증의 원인으로 유전적/생물학적 원인을 명시하고 있는가. 나아가 담론의 수위에서 정신의학 관련 전문가들이 매스미디어의 생의학적 관점의 확산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위의 두 가지 요소와 정신의학 관련 전문가 의견이 포함된 기사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생의학이란 생물학, 화학 그리고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의 원리에 기초하여 인간 신체의 기능과 병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의학적 설명 모델로서, 20세기 후반 면역학과 생명공학의 발전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해계모니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의학분야이다. 구체적인 분석 작업에 있어서 생의학적 관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연구자는 기사 본문에 신경전달물질(neurotransmitter)이나 유전자 그리고 뇌의 기능신경해부학(functional neuroanatomy)과 관련된 연구 내용이 소개되어 있을 경우 생의학적 연구결과가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간주하였다.¹¹⁾ 또한 우울증의 원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11) 이러한 기준은 기사가 전반적으로 생의학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신경전달물질이나 유전자, 뇌의 신경해부학적 이상에 관한 내용이

기사 본문에서 발병의 원인으로 신경전달물질(혹은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호르몬)의 이상이나 유전자(예컨대, 5-HTT) 문제, 혹은 뇌의 해부학적 문제(예컨대, 해마, 전전두엽, 측두엽 변연계 등의 이상)를 언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유전적/생물학적’ 원인을 제시했다고 간주하였다. ‘질병’(예컨대 암이나 치매 등)은 경우에 따라서 유전적/생물학적 원인일 수도 있지만, 분류의 통일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외시켰다. 이에 대비하여, 가족 내 갈등, 직장 문제, 사회적 역할이나 인식, 경제적 곤란, 정치적 문제, 학업/입시 등의 원인들은 세부적으로 따로 분류되었지만 상위 범주에서 모두 ‘사회적’ 원인으로 간주하였다.¹²⁾

〈표 4〉는 각각 유전적/생물학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을 언급한 기사 수와 백분율 그리고 연도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그림 4〉는 각각 유전적/생물학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이 전체 기사 중에서 차지한 비율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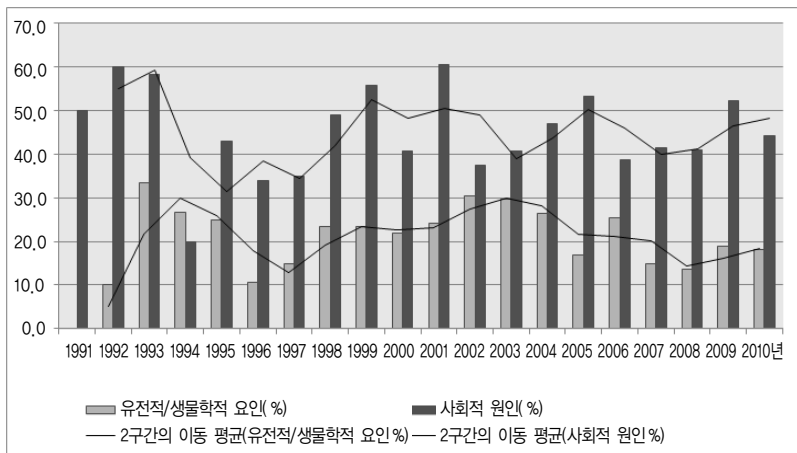
〈표 4〉 유전적/생물학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을 포함한 기사 수와 전체 기사에 대한 백분율

연도	전체기사 수(건)	유전적/생물학적 원인(건)	유전적/생물학적 원인(%)	사회적 원인(건)	사회적 원인(%)
1991	2	0	0.0	1	50.0
1992	10	1	10.0	6	60.0
1993	12	4	33.3	7	58.3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생의학적인 관점을 보여 주지 않는다고 분류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천 개에 가까운 기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핵심어의 유무가 아닌 연구자의 전반적인 내용 판단에 의해 분류하는 방법은 더 심각한 오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12) 본 조사에서 사용된 원인 유목 중에는 ‘심인성 원인’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기사에서 우울증의 원인을 어떤 감정이나 기분 상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이다. 상당히 많은 기사에서 심인성 원인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감정이나 기분이 생물학적인지 사회적인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이 논의에서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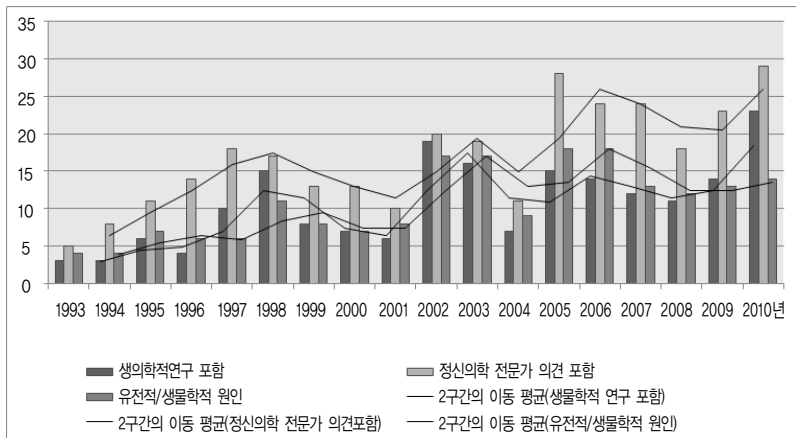
1994	15	4	26.7	3	20.0
1995	28	7	25.0	12	42.9
1996	47	5	10.6	16	34.0
1997	40	6	15.0	14	35.0
1998	47	11	23.4	23	48.9
1999	34	8	23.5	19	55.9
2000	32	7	21.9	13	40.6
2001	33	8	24.2	20	60.6
2002	56	17	30.4	21	37.5
2003	64	19	29.7	26	40.6
2004	34	9	26.5	16	47.1
2005	107	18	16.8	57	53.3
2006	75	19	25.3	29	38.7
2007	87	13	14.9	36	41.4
2008	88	12	13.6	36	40.9
2009	69	13	18.8	36	52.2
2010	77	14	18.2	34	44.2
총합	957	195	20.4	425	44.4



[그림 4] 전체 기사 중 유전적/생물학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을 언급한 기사의 백분율 비교

〈표 4〉와 〈그림 4〉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1991년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기복이 있기는 하지만, 유전적/생물학적 원인이나 사회적 원인은 시간 흐름에 따른 증감의 경향이나 서로 간의 우열의 변화 없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다. 전체 시기에 걸쳐서 유전적/생물학적 원인을 명시한 기사는 약 10~30% 정도를 차지하는 반면, 사회적 원인을 언급한 기사는 1994년 한 해만을 제외하고는 계속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그림 5〉는 유전적/생물학적 원인이나 생의학적 연구를 포함한 기사들이 정신의학 관련 전문가 의견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신문기사에서 정신과 의사나 정신의학자들의 의견을 포함시키는 경우는—심리학, 한의학, 보건정책, 사회복지, 종교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시키는 경우에 비해—대체로 우울증에 대한 생의학적 연구 내용들이 언급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우울증의 원인으로 유전적/생물학적 원인이 강조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호 간의 긍정적 상관관계는 신문사에서 우울증 기사를 작성



〔그림 5〕 생의학적 연구, 정신의학전문가 의견, 유전적/생물학적 원인을 포함한 기사 수의 변화(단위: 건)

할 때 어떠한 전문가 의견을 주로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우울증에 관한 특정한 시각을 배포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4. 분석 결과가 보여 주는 문화적 함의

1) 시대의 반영이자 사회적 은유로서의 우울증

손탁(Sontag 1990)에 따르면, 질병은 종종 그 자체로 이해되기보다는 사회적이고 문학적인 상상력 속에서 은유되어 나타난다. 예컨대 결핵은 1882년 박테리아의 감염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 인간의 정념과 광기와 연관된 낭만적이지만 불가해한 어떤 것으로 인식되었다. 마찬가지로 20세기의 에이즈는 동성애, 환자 판명, 전염병, 매춘, 상습적 성관계, 격리 수용, 색출 등의 연상 단어들 속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이거나 신이 내린 심판으로 대중 담론 속에서 이해되어 왔다(주정민 2011). 이처럼 질병은 단순히 의학적 대상을 넘어, 질병 자체의 성격과 감염자들의 특성 그리고 그 질병이 퍼져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현지인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독특한 사회적 은유로서 나타난다.

한국 사회에서 우울증은 어떠한가? 적어도 지난 20년간 매스미디어—특히 신문기사에서 다루어진 양상을 살펴보면, 우울증은 더 이상 괴이한 행동을 저지르는 범죄자나 상류층의 한가한 여성이 겪을 법한 증상으로서 그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울증은 현대사회를 사는 이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위험 요소로서, 만일 방치한다면 자살이나 살인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증상을 일찍이 깨달아 적합한 전문가를 찾아서 치료를 받는다면 심각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정상인’으로 회복도 가능한 문제로서 점차 나타나

고 있다. 그런데 앞의 문장에서 ‘우울증’ 대신에 ‘조기 퇴직’이나 ‘취업 실패’를 끼워 넣는다고 해도 문장이 크게 이상하지 않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떤 측면에서, 우울증은 하나의 정신과적 질병을 넘어 오늘날 한국인이 경험하는 일상적 위험과 불안요소를 드러내고 개인의 적절한 대응방식을 하나의 새로운 윤리로서 강조하는 현 대사회에 대한 은유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왜 지난 20년간 우울증이 한국의 대중적 담론 속에서 ‘유행’하는 질병이 되었는가를 답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대한 문화적 분석 작업을 요구한다. 비록 그 분석에 있어 제한적일 수 있으나, 본 연구결과는 우울증이 매스미디어의 인기 주제로 등장하게 된 맥락이 적어도 한국 사회의 사회 경제적 구조 변화 및 우울한 사회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연구결과는 특별히 1996년과 2005년 두 번에 걸쳐서 ‘우울증’을 제목에 포함한 기사 수가 현저하게 증가해 왔다고 보고한다. 그렇다면, 왜 1996년을 계기로 갑자기 기사 수가 증가하게 된 것일까? 기사 본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왜 당시에 매스미디어가 우울증에 주목하고 있었는가 하는 실마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1996년에 우울증에 관한 기사가 대거 등장하게 된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구체적으로, 1995년과 1996년은 대구 가스폭발이나 삼풍백화점 붕괴 등 한국 사회에 잇따른 대형 사고로 사회적 분위기가 암울했던 시기이다. 또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에 정부가 구제 금융을 요청하기 직전 시기로 한국 사회 내에 ‘명퇴’(명예퇴직) 또는 실업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당시에 보도된 우울증 기사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대학을 졸업하고 일류 대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다 3년 전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둔 김아무개(31세, 여) 씨는 지난해 아들이 두 돌을 넘긴 뒤부터 재취업을 하려 했으나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김 씨는 고민 끝에 학습

지 외판사원으로 나섰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3개월 만에 그만두면서 우울증세를 보였다. 김 씨는 올해 초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한 뒤 우울증이 더욱 심해져 가출까지 한 끝에 결국 친정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병원을 찾았다. 여성의 고학력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고학력 여성들의 우울증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갱년기 전후의 여성들과 사회적 결혼계층의 여성들이 주로 호소하던 우울증이 최근엔 고학력 30대 주부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한겨레신문』 1996년 8월 9일자, “우울한 사회, 우울증 주부(2) — 재취업 좌절 정체성 위기감”).

조기 명예퇴직 붐이 일면서 노인뿐 아니라 일부 40대 퇴직자에게도 ‘노인성 정신질환’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성 정신질환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지위 상실과 함께 무력감에 사로잡히는 데 큰 원인이 있다. 서울중앙병원 김현수 교수(정신과)는 “남성은 55~65세, 여성은 50~60세경부터 정신적 노년기에 접어들기 시작한다”며 “최근 명예퇴직을 당한 40, 50대 남성들도 노인성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가족들과 집안일을 함께하거나 노인학교, 교회, 절을 찾아 삶의 의욕을 가다듬는 게 우울증 예방에 좋다. 특히 사회봉사는 노인들에게 새삼스레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해줘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큰 효과가 있다(『동아일보』 1997년 1월 29일자, “정신적 황혼 명퇴질환 — 우울증 불면 등 노인성 질환 호소”).

비록 그 대상이 ‘주부’와 ‘40대 퇴직자’ 등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사는 우울증 발병의 배경으로 한국의 사회 경제적 구조 변화로 인한 직장 취업의 곤란과 심리적 고통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취업 실패와 직장 퇴출을 경험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문제는 ‘우울증’이라는 한 단어 속에 압축되어 1990년대 중반 내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한다. 이처럼 매스미디어 담론에서 우울증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사회적 불안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언어적 장치로서 역할해 왔다. 앞서 인용한 기사의 제목이 “우울한 사회, 우울증 주부”이듯이, 어느새 한국 사회에서 우울증이라는 병명은 우울하고 병적인 사

회를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해 주는 상징이자 은유가 된 것이다.

2) 유명 연예인 기사가 우울증 담론 확산 및 개념 변화에 미치는 영향

매스미디어에서 우울증 담론이 확산되는 계기를 반드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오히려 연구결과는 어떤 질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등장 및 확산에는 훨씬 우연적이고 개인적인 사건이 관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예컨대 1996년의 기사 급증이 한국의 구조적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면, 2005년의 무려 100건이 넘는 우울증 기사 보도의 배경에는 어떤 사회적 상황보다도 인기 여배우였던 이은주 씨의 자살과 우울증 사인(死因) 공개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유명인의 특정 질병 감염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잦은 보도는 결과적으로 그 질병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다. 나아가 유명인의 질병 감염에 대한 기사는 그 유명인이 어떠한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질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대중적 확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¹³⁾ 이러한 이유로 인해 건강 관련 뉴스에는 실제로 유명인의 사례가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건강 관련 미디어 뉴스 분석 연구에서도 유명인

13) 최근 영국의 한 정신의학 연구는 1990년대 영국에서 폭식증(bulimia) 발병률의 갑작스러운 증가가 당시 다이어나 왕세자비의 폭식증 투병에 대한 잦은 미디어 보도와 관련이 있다고 암시하고 있다(Currin et al. 2005). 즉 다이어나 왕세자비의 증상에 대한 세세한 미디어 보도로 인해, 영국 대중들은 폭식증을 매우 익숙한 질환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이어나 왕세자비가 가지고 있던 화려한 이미지로 인해 폭식증에 대해서도 잠정적으로 수치심을 덜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명인의 정신질환 경험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보도는 대중들에게 암암리에 그 질환이 사회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고통의 표현방식이라는 인식을 형성하게끔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의 고통을 인정받길 원하는 환자 개인의 증상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 언급을 하나의 중요한 카테고리로 다루고 있다(조수영·김정민 2010; Cho 2006).

2005년 당시 톱스타였던 이은주 씨의 자살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만큼 매스미디어에 의해 장기간 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그 원인이 우울증이라고 밝혀지면서 한국 매스미디어에서 다루는 우울증 담론의 성격을 전환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그녀가 자살을 선택하기까지 처해 있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은 그녀가 갖고 있던 긍정적 이미지와 결부되어 우울증에 대한 관념을 크게 뒤바꾸어 놓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매스미디어 담론은 우울증 환자를 비롯한 정신질환자를 단순히 ‘비정상적이고 무능하며 위험한 존재’로 간주하던 부정적 태도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오히려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때로는 ‘정당한 사회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고통 받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동정(同情)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다. 우연적인 계기이지만, 결과적으로 이은주 씨의 자살 보도는 그 규모와 효과에 있어서 한국 사회에서 우울증 문제를 대중화시키고 그에 대한 관념을 변화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이은주 씨 우울증에 대한 신문 보도 사례이다.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부담감이 연예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화려한 모습 뒤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한 피나는 노력과 남다른 고통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그러나 그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다. 연예인 정신과 치료 경험 이 많은 서울 강남의 김 모 정신과 병원장은 “여자 연예인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속앓음(우울증)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라고 잘라 말했다. 김 원장은 “이은주의 경우 톱스타의 위치를 유지하려는 부담감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을 텐데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효과적으로 카타르시스(자기정화)를 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전문가는 “유명인의 자살은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모방자살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경향신문』 2005년 2월 24일자, “연예인 우울증 ‘상초월’— 화려함 뒤의 고통 일반인보다 심각”).

이 기사는 연예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속앓음’을 한다면서, 그러한 고통한 ‘속앓음’을 ‘우울증’과 단순 일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정신과 병원장의 언급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이 기사에서 우울증은 치료가 필요한 어떤 질병이라기보다는 직업적 특성에 기인하거나 ‘자기정화’를 하지 못하는 성격 문제 정도로 치부되고 있다.

이처럼 지난 20년간 한국의 매스미디어 담론에서 나타나는 우울증의 모습은 ‘누구의’ 우울증이냐에 따라서 다소 감정적이고 편파적인 시각 속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위의 기사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연예인이 가질 수 있는 심리적 고통의 어마어마한 크기이다. 마찬가지로 이 시기 이후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연예인 우울증 환자¹⁴⁾에게는 기존의 편견과 달리 어느 정도의 면죄부가 주어지는 현상이 발견된다. 다음은 2008년도 10월, 자살로 사망한 최진실 씨에 대한 보도이다.

...최씨는 5년 전 이혼을 하면서부터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6개월 전부터 먹고 있는 신경안정제의 양을 늘려 왔다”며 “최근 들어 자주 힘들다는 말을 해 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자녀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와 함께 정상급 연예인들이 겪는 위상 추락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달 30일 한 스포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예인으로 살다 보면 루머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잘 알지만, 이번 사건은 그 글 하나 때문에 안재환 씨의 유가족과 친구들이 너무 큰 상처를 입었다”며 “하루아침

14) 연예인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영화배우인 박진희 씨가 주변 연기자 260명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자살 생각에 대해 설문조사한 논문¹⁴⁾에 따르면, 이들 중 38.9%가 우울집단에 속한다고 한다(박진희 2009).

에 사채업자가 돼 있는 걸 확인했을 때 너무 황당하고 억울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집에서 나가질 못했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한겨레신문』 2008년 10월 3일자, “텔런트 최진실 씨 사망/사채 괴담·우울증…‘세상의 질투’에 시들다”).

다른 어떤 연예인보다 유명세가 높았던 최진실 씨의 경우, 이혼·폭행·양육권 문제 등과 관련하여 대중에게 사적인 영역이 자세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비슷한 내용의 드라마를 통해서 재기를 시도했으나,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인터넷 상의 악성 비난을 일방적으로 감당해야 했으며 결국 자살하고 말았다. 최진실 씨의 우울증과 자살사건을 이와 같은 연속적인 상황들 속에서 맥락지운 기사 보도들은, 이은주 씨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연예인이라는 직업적 특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 속에서 우울증 환자에 대한 이해와 동정의 메시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처럼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늘어난 연예인을 비롯한 각종 유명인의 우울증에 대한 기사 보도는 적어도 매스미디어 담론을 통해 우울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확산시키는 데 커다란 영향력을 끼쳐 왔다.

3) 신자유주의적 사회 변화에 따른 자기관리 지식으로서의 우울증 정보

연구결과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우울증 기사의 성격이 ‘사건 보도’에서 ‘정보 제공’의 성격으로 점차 변화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경향은 우울증이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라는 인식으로부터 점차 일반인들이 누구나 알아 두어야 할 건강 상식일 수 있다는 매스미디어의 입장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다음의 두 기사 사례는 각각 ‘사건 보도’와 ‘정보 제공’ 기사가 갖는 차이점을 뚜렷이 보여 준다.

병원에 입원하러 왔던 30대 남자가 승용차를 몰고 40여 분간 대로를 질주, 차량 15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광란의 질주극을 벌였다. …송 씨는 이날 오후 지병인 당뇨병 및 간질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강원도 춘천에서 대리운전자 이모 씨가 운전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아버지와 함께 상경했다. 송 씨는 경찰에서 “가족들이 나를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송씨는 83년 K대 농학과를 졸업하고 춘천시 H대 부속병원 총무과에서 3년 동안 근무한 뒤 86년에는 호주에 어학연수까지 다녀왔다. 지난 2월 부인과 이혼한 뒤 심한 우울증세를 보였으며 지난 3월 중순 가출했다가 이날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다(『조선일보』 1995년 4월 11일자, “광란차 도심질주극 40분—우울증, 강제입원 피하려 했다”).

인기 연예인 김나영 씨가 진단받은 ‘가면우울증’이란 병명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김 씨처럼 항상 웃는 표정의 유명 연예인이나 스투어디스,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고객의 기분을 맞춰야 하는 서비스 종사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회봉사자 등은 자신도 모르게 생길 수 있는 병이라고 얘기한다. …우울한데, 감정 숨기는 게 버릇이 되다 보니 가면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하다’, ‘괴롭다’라고 호소하지 않는다. 정서적 표현이 제한되는 대신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다. 감정을 숨기다 보니 극도의 스트레스가 쌓여 몸에 각종 이상이 생기는 것… 가면우울증이 의심되면 우선 적절한 휴식과 함께 환경을 바꿔 보자. 평상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충분히 갖고, 당분간 현재의 자신을 괴롭히는 업무에서 떠나 새로운 일이나 사람을 접하려고 시도해 본다(『국민일보』 2010년 1월 25일자 “‘가면 우울증’ 아시나요”).

‘사건 보도’ 기사가 우울증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을 재생산하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 적어도 표면적으로 ‘정보 제공’ 목적의 기사는 반대로 우울증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예컨대 위의 기사에서 “차량 15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광란의 질주극”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어학연수까지 다녀왔다”라는 표현은

우울증 환자가 ‘난폭’하고 ‘비상식적’이며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전달한다. 반면, “인기 연예인” “항상 웃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신도 모르게 생길 수 있는” 등의 언어적 표현은 우울증이 매우 ‘정상적인’—심지어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모습의—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우울증에 대한 기사가 점차 개별적인 사건의 보도보다는 질병의 진단 기준, 치료방법, 예방 지침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정보 제공의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은 인류학적으로 볼 때 매우 의미심장한 변화이다. 신문기사는 지금까지 정신보건 전문가만이 참조하던 질병 진단 기준표를 그대로 제시하며(아래의 인용 참조), 스스로 자신이 혹시 우울증이 아닌지 점검해 보라고 요청한다. 만일 일정 점수 이상을 넘기면 우울증의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면 당장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 보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위험의 사례는 종종 어린 자식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는 임신우울증에 걸린 여성이나, 집중력 부족과 잦은 짜증으로 회사에서 쫓겨난 뒤 가족에게도 버림받는 남성의 모습에서 생생하게 그려진다.

다음은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NIMH)의 우울증 척도표를 우리 현실에 맞게 개량한 것이다. 지난 1주일간 다음 20개 항목의 일을 경험했는지 체크해 전혀 없었으면 1점, 1~2회 있었으면 2점, 3~4회 있었으면 3점, 5~7회 있었으면 4점을 부과한다. 각 항목별 점수를 더해 24점 이상이면 우울증이다.

- ① 평상시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귀찮게 여겨졌다.
- ② 입맛이 없었다.
- ③ 가족-친구를 만나보고 얘기를 했지만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 ④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 ⑤ 내가 하는 일에 마음을 집중시키기 힘들었다.
- ⑥ 살맛이 나지 않으면서 기분이 불쾌했다.
- ⑦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모두가 불쾌했다.
- ⑧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꼈다.
- ⑨ 내 인생은 실패였다고 생각했다.
- ⑩ 두려움을 느꼈다.
- ⑪ 잠

을 시원하게 못 잤다. ⑫ 행복한 편이었다. ⑬ 평상시보다 말을 적게 했다. ⑭ 외로움을 느꼈다. ⑮ 사람들이 다정하지 못하다고 느꼈다. ⑯ 생활을 즐겁게 보냈다. ⑰ 울었던 적이 있었다. ⑱ 슬픔을 느꼈다. ⑲ 주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⑳ 무슨 일이든 활발하게 참여할 수 없었다(『조선일보』 1998년 2월 16일자, “우울증 자가진단법 - 난 괜찮을까?”).

이러한 접근방식의 변화는 먼저 우울증 환자에 대한 ‘위험’이 ‘사건 보도’와 ‘정보 제공’ 성격의 기사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문화적 의미를 띠고 나타나는가를 주목하도록 한다. 즉 ‘사건 보도’의 기사에서 나타나는 ‘위험’이란 설령 우울증 환자가 대부분의 삶 속에서 별다른 사건이나 사고 없이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언제 갑자기 주변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미에서, 정신질환자가 갖는 본질적인 성격의 문제로서 다루어진다. 반면 ‘정보 제공’의 기사에서 나타나는 ‘위험’이란 충분한 자가진단과 관리를 통해 얼마든지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조건부적인 성격을 띤다. 여기에서 정신질환이란 본질적으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일상 생활 속에서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현상이다. 결국 기사 보도의 성격 변화 속에서, 우울증의 문제는 정신질환자의 영역으로부터 일반인의 영역으로 그 대상이 이동한다.

보다 심층적으로, 우울증 기사가 ‘정보 제공’의 성격으로 바뀌는 현상은 변화된 사회 경제적 조건에 적합한 주체를 생성하고자 하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특정한 통치 방식과 관련이 있다. 즉 우울증에 대해 넘쳐나는 정보와 전문가도 헛갈리는 까다로운 기준들 및 하위 형태들(예컨대, ‘가면우울증’, ‘산후우울증’, ‘주부우울증’, ‘갱년기우울증’, ‘노인성우울증’, ‘이차성우울증’, ‘주요우울증’ 등) 그리고 매우 세세하지만 서로 모순되고 상이한 치료법들은 사실상 우울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병한 환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기보다는, 정신건강에 대한 개인의 자기관리 규율이 엄격하게 조직되고 강화되도록 강제하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과정

에 다름 아니다(Foucault 1977, 1980, 1990; Biehl 2005, 2007).

더 이상 원시적인 축적을 통해 초과 이윤을 만들어 낼 수 없는 후기 자본주의의 사회 경제적 조건 속에서, 경제 성장의 지체와 구조 조정의 부작용이 만들어 낸 사회적 문제들은 소위 신자유주의적 정치이념에 힘입어 점차 기업이나 국가가 아닌 노동자 개인의 부담과 책임으로 간주된다. 그 결과 개인들은 한편으로 실업, 임금 삭감, 도산과 같은 각종 위험과 위협 속에서 정신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대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매순간 자기 규율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자기건강 관리를 위한 정보에 민감하도록 요구된다(Beck 1992). 그리고 개인들은 매스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영역으로부터 만일 이러한 자기관리의 규율을 늦출 경우 노동 시장과 사회로부터 제외될 것이며, 말 그대로 정신질환자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거나 죽음으로 길거리에 버려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반복해서 듣고 있는 것이다(Agamben 1998; Das 2006).

요약하건대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에 관한 기사들이 ‘사건 보도’가 아닌 ‘정보 제공’의 성격으로 변화한 것을 단순히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감소된 것으로 바라본다면, 그러한 담론 변화에 내재한 문화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우울증이 일반인에 대한 정보 제공의 대상으로 나타나게 된 현상은 본질적으로 현대 후기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시켜 온 특수한 통치방식의 한 측면을 드러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경쟁과 배제의 논리를 단지 개인의 자기관리 능력의 문제로서 치부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치 기획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4) 서구 생의학적 담론이 확산되는 공간으로서 매스미디어

한국의 주요 일간지들은 언젠가부터 앞다투어 건강과 의료 전문 지면을 따로 만들어 왔다. 예컨대 조선일보의 경우, ‘라이프’라는 일간 지면과 더불어 매주 수요일에는 ‘건강’ 특별지면을 발간한다. 동아일보의 경우, ‘의학/과학’ 지면에서 각종 의학정보 및 의료 관련 신기술을 다루며, 마찬가지로 매주 수요일마다 ‘헬스 & 뷰티’라는 특별지면을 발행하고 있다. 국민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은 일일판형에는 특별히 건강 관련 지면을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각각 ‘IT/과학’ 또는 ‘과학’ 지면에서 새로운 의료 기술이나 신약 소개를 하고 있고, 덧붙여 비정기적으로 ‘쿠키뉴스 건강’ ‘헬스 경향’ ‘건강한 세상’이라는 제목의 특별지면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건강 및 의료 관련 지면의 생성은 우울증과 같이 그간 사회면에 집중되어서 소개되었던 항목들이 점차 건강이나 의료 지면에서 다루어지면서 기사의 성격 또한 변화되게끔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건강과 의료 문제가 과학이나 기술과 동일한 지면에 소개되는 일간지의 경우, 최신의 과학적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첨단 기술과 약물 중심의 생의학적 관점을 편향되게 다룰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야기한 요인은 무엇인가? 매스미디어가 건강과 의료 관련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달하게 된 원인이 단순히 — 신문사 측에서 언급하는 바처럼 — 한국인의 소득수준의 증대 및 ‘웰빙’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나타난 특정 정보에 대한 수요의 증대 때문만은 아니다. 건강식품이나 건강기구 그리고 의료 정보와 서비스가 이미 다양하게 상품화되어 있고 우리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듯이, 일반인들에게 건강과 의료 정보는 이미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의해서만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을 훨씬 벗어났기 때문이다. 오히려 건강과 의료 정보의 수요 증대와 확산은 다양한 기술개발 산업체, 초국가적 의약품 기업,

국내외적 보건기구, 관련 연구교육기관 및 전문가 조직의 영향과 압력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예컨대 한 가지 요인으로서 정신질환에 대한 세계 보건계의 관점 변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2001년 말, 세계보건기구(WHO)는 그해의 연차 보고서를 『정신건강: 새로운 이해, 새로운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의 머리말에서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노르웨이 출신의 브룬틀란 박사(Dr. Gro Harlem Brundtland)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정신질환은 인간적 실패가 아니다. ...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우리는 암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한다. 암은 가족의 비밀이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아직도 에이즈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장벽들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2001년 세계 건강의 날의 주제는 “배제를 멈춰라—용기를 내어 돌보자(Stop Exclusion—Dare to Care)”였다. 이 주제가 뜻하는 바는 우리의 공동체로부터 정신질환이나 뇌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은 여전히 그러한 사람들을 피하거나 모른 체하고 있다—마치 우리가 어찌 그들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겠냐는 듯이. 이 보고서는 어떻게 과학과 감성이 함께 결합하여 정신 건강에서의 돌봄과 치료를 방해하는 실재적이고 인지된 장애물들을 무너뜨릴 것인가를 보여 준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들에게 실재적인 희망을 가져다 줄 새로운 이해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WHO 2001: ix, 번역은 저자).

브룬틀란 박사의 머리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막 새롭게 제기되고 있던 정신의학(특히 뇌과학 분야)의 성과와 분위기를 한껏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먼저, 연차 보고서의 제목은 ‘정신질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녀의 머리말은 당시 뇌과학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반영하여 정신질환(mental illness)과 뇌의 장애(brain disorder)를 살며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부제목인 “새로운 이해, 새로운 희망”에서

암시하는 바와 같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배제를 멈출 수 있는 근거가 다름 아닌 ‘새로운 이해’—정신질환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지식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만일 정신질환이 뇌의 장애로서 신체질환의 일부라면, 우리가 더 이상 암에 대해서 비밀시키고 편견을 갖지 않듯이 정신질환도 곧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찬 고백이다.

생의학적 관점, 특히 뇌의 장애라는 관점으로 정신질환을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는 WHO의 사무총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신질환이 신체질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유포하고 궁극적으로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배제를 멈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전의 또 다른 측면은 정신질환의 상당 부분이 뇌의 장애로 간주되는 순간—마치 암환자의 경우처럼—고통의 원인과 치유의 방법은 사회적 맥락과는 무관하게 순전히 개인적이고 의료적인 문제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과연 WHO의 예견대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이 정신질환에 있어서의 돌봄과 치료를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최근 정신질환을 연구해 온 의료인류학자들이 브라질, 미국 그리고 중국의 사례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오히려 지속적인 약물 치료나 뇌수술을 받을 수 없는 사회적 빈곤계층들을 완전히 치료로부터 배제시키게 될 것인지는 따져 봐야 할 문제이다(Biehl 2005; Bourgois and Schonberg 2009; Lee 2009).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항목(생의학적인 연구결과를 포함했는가의 여부 그리고 유전적/생물학적 원인을 명시했는가의 여부)을 토대로, 과연 지난 20년 동안 주요 일간지 기사에서 생의학적 관점이 얼마나 증감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1991년에서 2010년의 기간 동안 유전적/생물학적 원인을 포함한 기사는 사회적 원인을 포함하고 있는 기사와의 상대적 비율의 측면에서 그다지 큰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정한 수준(10~30%)을 유지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 가지 의문을 낳는다. 즉, 이처

림 비율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이 과연 1990년대 초에 이미 우울증에 관한 생의학적 관점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2000년대까지도 한국 사회에서는 우울증을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려는 시각이 여전히 우세하기 때문일까.

본 연구에서는 1991년 이후의 기사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부터 매스미디어에서 우울증에 관한 생의학적 정보를 전달하기 시작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수행되어 온 우울증에 관한 생의학적 연구들을 고려할 때, 1990년대 이전에 한국에서 신경전달물질이나 뇌기능에 관한 생의학적 정보가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한국 정신의학계에서도 신경전달물질과 우울증 간의 연관관계는 1990년도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주목을 받았으며(예컨대 김영훈 1995; 백인호 1993),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뇌해부학적인 원인들에 대한 발견은 세계적으로 1990년대 뇌영상 촬영기법의 등장 이후에야 가능해진 것이기 때문이다(남윤영·전우택 2002; 이상혁 외 2008). 따라서 지난 20년간 생의학적 관점을 포함한 기사가 비율상 크게 증가를 보이지 않는 현상은, 생의학적 관점이 그 이전에 이미 정착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매스미디어 담론에서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인 관점과 해석이 더욱 중요하고 의미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연구결과는 생의학적 관점을 나타내는 두 가지 항목과 기사 내 정신의학 관련 전문가 의견의 인용 여부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즉, 정신과 의사나 정신의학자의 의견이 기사에 인용되었을 경우, 우울증에 관한 기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의학적인 연구결과를 소개하거나 유전적/생물학적 원인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물론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정신의학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우울증에 관한 생의학적 관점을 지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이들이 매스미디어 담론

에 참여하면서 생성하는 결과는 궁극적으로 생의학적 관점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특정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매스미디어 담론의 성격,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우울증에 대한 이해를 특정 방식으로 형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5. 마치며

본 논문은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주요 일간지 다섯 개의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우울증에 관한 한국 매스미디어 담론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지면상의 제약으로 인해 이번 조사에서 얻은 결과들을 모두 제시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적어도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난 20년간 우울증을 다룬 기사의 수는 매우 급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국가적 사건이나 사회 경제적 분위기에 따라 그 관심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고, 또한 유명인의 사건이 담론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년간 우울증에 관한 신문기사의 담론은 점차 ‘사건 보도’보다는 우울증의 진단 기준, 치료와 예방방법을 알려주는 ‘정보 제공’의 성격으로 변화해 가면서, 우울증이 단지 특수한 사람들에게 한정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정신의학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우울증 기사 내에 자주 인용되면서 우울증의 원인을 생물학적/유전적 요인으로 바라보는 기사들이 증가해 왔지만, 여전히 전체 기사 내의 비율상으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을 나타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우울증에 관한 생의학적 관점과 치료방식이 실제 의료 영역 속에서는 강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매스미디어 담론 속에서는 여전히 사회적 원인이 강

조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서두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최근 우울증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그러한 현상에 대한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도로서, 매스미디어 담론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신문기사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매스미디어를 다른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요소들과 관련 맺고 있는 하나의 영향력 있는 기관으로 다루기보다 단순히 특정 정보를 확산시키는 문화적 도구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 및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될 한국 우울증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보완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우울증에 관한 의료인류학적 질문은 궁극적으로 현재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태도, 실천 그리고 경험이 한국의 사회 문화적 변화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가를 대답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소위 후기 자본주의의 사회 경제적 조건과 특별히 한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 상황들이 한국인이 경험하는 우울증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또 개인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정치적 기관들과 사회적 집단들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는 데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정신건강과 질병에 대한 새로운 의학적 담론의 확산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스스로의 신체를 사고하고 관리하는 문화적 관념과 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대답하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정신질환, 특히 우울증이 사회 문화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지연, 2011, “설득의 기술: 현대 한국 불임 클리닉에서의 치료의 수사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성완·윤진상·이무석·이형영, 2000, “최근 일간지에 보도된 정신병에 대한 기사 분석,” 『신경정신의학』 39(5): 838-848.
- 김영훈, 1995, “우울증 치료제들의 작용기전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소견,” 『생물치료정신의학』 1(2): 174-180.
- 남윤영·전우택, 2002, “우울증의 신경생물학적인 최신지견,” 『KSBMB News (생화학분자생물학회 소식지)』, 169-180.
- 박진희, 2009, “언기자의 스트레스와 우울, 자살 생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 백인호, 1993, “우울증과 Serotonin,” 『대한정신약물학회지』 4(2): 81-89.
- 이상혁·김보라·김찬형, 2008, “현대 정신의학은 어떻게 우울증을 이해하고 있나?,” 『Journal of Neuropsychiatry Association』 47(1): 3-10.
- 이유상·남정현·김이영, 1992, “우울증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및 개념 조사,” 『신경정신의학』 31(4): 716-734.
- 이충순·이동윤·황용석, 1996,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정신질환자 범죄기사의 분석,” 『신경정신의학』 35(5): 1132-1144.
- 조수영·김정민, 2010,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지상과 TV 뉴스 분석,” 『한국언론학보』 54(5): 181-204.
- 주정민, 2011, “현대 한국에서의 감염인의 질병경험과 에이즈(AIDS)의 도덕적 의무구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Agamben, Giorgio, 1998, *Homo Sacer: Sovereignty and Bare Lif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Beck, Ulrich, 1992, *Risk Society*, London: Sage.
- Bernard, H. Russell, 2002, *Research Methods in Anthropology: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Walnut Creek: Altamira Press.
- Biehl, João, 2005, *Vita: Life in a Zone of Social Abandon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2007, *Will to Live: AIDS Therapies and the Politics of Surviva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ourgois, Philippe & Jeffrey Schonberg, 2009, *Righteous Dopefien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ho, Soo Young, 2006, "Network News Coverage of Breast Cancer, 1974~2003,"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3(Spring, 1): 116-130.
- Coverdale, John, Raymond Nairn, & Donna Claasen, 2002, "Depictions of Mental Illness: A Prospective National Sampl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6: 697-700.
- Currin, Laura, Ulrike Schmidt, Janet Treasure, & Hershel Jick, 2005, "Time Trends in Eating Disorder Incidenc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6: 132-135.
- Das, Veena, 2006, "Power, Marginality, and Illness," *American Ethnologist* 33(1): 27-32.
- Foucault, Michel, 1977,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New York: Vintage Books.
- _____ 1980, *Power/Knowledge*, in Colin Gordon (ed.), New York: Pantheon.
- _____ 1988, *Madness and Civilization: A History of Insanity in the Age of Reason*, New York: Vintage Books.
- _____ 1990, *The History of Sexuality: An Introduction*, Vol. 1, New York: Vintage Books.
- _____ 2003, *The Birth of the Clinic*, London: Routledge.
- Ginsberg, Faye, 1994, "Some Thoughts on Culture/Media," *Visual Anthropology Review* 10(1): 136-141.
- Ginsberg, Faye, Lila Abu-Lughod, & Brian Larkin, 2002, *Media Worlds: Anthropology on New Terrai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ravlee, Clarence C. & Elizabeth Sweet, 2008, "Race, Ethnicity, and Racism in Medical Anthropology, 1977~2002," *Medical Anthropology Quarterly* 22(1): 27-51.
- Hall, Stuart, 1977, "Culture, the Media, and the "Ideological Effects"," in J. Curran, M. Gurevitch, & J. Woollancott (eds.),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London: Edward Arnold, pp.315-48.
- Lane, Christopher, 2007, *Shyness: How Normal Behavior Became a Sickness*, Binghamton: Vail-Ballou Press (이문희 역, 2008, 『만들어진 우울증』, 한겨레출판).
- Lee, Hyeon Jung, 2009, "States of Suffering: Female Suicide, Subjectivity, and State Power in North Rural China," Ph. D. Dissertation in the

- Department of Anthropology at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 Lock, Margaret, 1993, *Encounters with Aging: Mythologies of Menopause in Japan and North Amer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2002, *Twice Dead: Organ Transplants and the Reinvention of Death*,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ock, Margaret & Vinh-Kim Nguyen, 2010, *An Anthropology of Biomedicine*, West Sussex: John Wiley & Sons.
- Martin, Emily, 1987, *The Woman in the Body: A Cultural Analysis of Reproduction*, Boston: Beacon Press.
- _____, 1991, "The Egg and the Sperm: How Science Has Constructed a Romance Based on Stereotypical Male-Female Roles," *Signs* 16(3): 1-18.
- _____, 1992, "The End of Body?," *American Ethnologist* 19(1): 121-140.
- _____, 1994, *Flexible Bodies: Tracking Immunity in American Culture from the Days of Polio to the Age of AIDS*, Boston: Beacon Press.
- Otey, Emeline & Wayne S. Fenton, 2004, "Editor's Introduction: Building Mental Illness Stigma Research," *Schizophrenia Bulletin* 30(3): 473-475.
- Peterson, Alan & Robin Bunton, 1997, *Foucault, Health, and Medicine*, London: Routledge.
- Seale, Clive, 2003, "Health and Media: An Overview,"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25(6): 513-531.
- Shorter, Edward, 1997, *A History of Psychiatry: From the Era of the Asylum to the Age of Prozac*, John Wiley & Sons (최보문 역, 2009, 『정신의학의 역사』, 바다출판사).
- Sontag, Susan, 1990, *Illness as a Metaphor and AIDS and Its Metaphors*, New York: Picador USA.
- Spitulnik, Debra, 1993, "Anthropology and Mass Media,"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2: 293-315.
- Stout, Patricia A., Jorge Villegas, & Nancy A. Jennigs, 2004, "Images of Mental Illness in the Media: Identifying Gaps in the Research," *Schizophrenia Bulletin* 30(3): 543-561.
- Treichler, Paula, 1987, "AIDS, Homophobia, and Biomedical Discourse: An Epidemic of Signification," *Cultural Studies* 1(3): 263-305.
- Wahl, Otto E., Amy Wood and Renee Richard, 2002, "Newspaper Coverage

of Mental Illness: Is It Changing?," *Psychiatric Rehabilitation Skills* 6(1): 9-31.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The World Health Report 2001—Mental Health: New Understanding, New Hop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자료〉

(본 논문에서 분석된 다섯 개 주요 일간지—조선, 동아, 국민, 경향, 한겨레—의 1991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해당 관련기사들은 지면 관계상 생략함)

『경향신문』 “서울대생 우울증 검사 받는다—학업 취업 경쟁 속 자살 폭력 잇따라,” 2005년 6월 7일자.

『롯데마트 사보』 “마음의 감기 우울증 이겨내기,” Vol.96, 2011년 10월호, pp.22-23.

조선닷컴 “자살충격 KAIST, 스트레스 특강 연이어 마련한다,” 2011년 4월 18일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4/18/201104181844.html).

SBS뉴스 “SG워너비 전 멤버 채동하 숨져… 우울증 앓아,” 2011년 5월 27일자.

〈부록 1〉 기사 분석에 사용된 주요 질문 및 분류 유목

주요 질문	분류 유목
1. 어느 섹션의 기사인가?	1) 사실/칼럼 2) 과학/건강 3) 문화/연예 4) 사회 5) 생활/여성 6) 기타 7) 알 수 없음
2. 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1) 사건 보도 2) 정보 제공
2-1. 사건 정보의 성격은?	1) 자살 2) 범죄 3) 기타
2-2. 정보 제공의 성격은?	1) 질병 정보 2) 치료 정보 3) 예방 정보 4) 기타
3. 기사에서 다음의 단어가 사용되었는가?	1) 자살 2) 폭력이나 상해 3) 살인 4) 알코올 이나 니코틴 중독 5) 도박이나 인터넷 중독 5) 기타 행동장애 관련 단어
4. 기사에서 언급된 사례의 성별 초점은?	1) 남성 2) 여성 3) 성별 무관
5. 기사에서 언급된 사례의 연령대는?	1) 소아 2) 10대 3) 20~30대 4) 40~50대 5) 60대 이상
6. 기사에서 언급된 사례의 직업군은?	1) 전문직 2) 사무직 3) 기술직 4) 서비스직 5) 판매직 6) 농림어업 7) 단순노무직 8) 주 부 9) 군인경찰 10) 학생 11) 무직 12) 직업 무관
7. 유명인이 언급되었는가?	1) 유명인 언급 있음 2) 유명인 언급 없음
7-1. 유명인의 형태는?	1) 연예인 2) 정치가 혹은 경영인
8. 생의학적(호르몬 및 뇌생물학 관련) 연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1) 포함 2) 불포함
9. 기사에서 인용된 전문가 의견의 출처는?	1) 심리학 관련 2) 정신의학 관련 3) 일반(비 정신)의학 관련 4) 한의학 관련 5) 의학전문 기자 6) 기타 의료 관련 7) 사회복지 관련 8) 종교 관련 9) 보건정책 관련 10) 경찰 11) 법원판결 12) 기타
10. 기사에서 언급된 우울증의 원인은?	1) 유전적/생물학적 원인 2) 심인성 원인 3) 성격 4) 질병 5) 날씨/기온 6) 가족문제 7) 사회적 역할/태도/인식 8) 직장업무 9) 학업/입시 10) 경제적 문제 11) 정치적 문제 12) 기타

11. 원인과 관련하여 다음의 단어가 사용되었는가?	1) 임신 혹은 출산 2) 실직이나 취업 실패
12. 다른 질병이 함께 언급되었는가?	1) 정신질환 2) 신체질환(구체적 병명 기입)
13. 기사에서 제시된 치료방법이나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1) 약물치료 2) 정신(상담)치료 3) 종교적 치유 4) 한방치료 5) 가족 관심 6) 사회의 인식변화 7) 개인의 태도변화 8) 기업정책변화 9) 국가정책변화 10) '전문가 치료' 11) 기타
14. 기사는 편견을 강화시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1) 무능/부적응 2) 위험/폭력성 3) 회복 불가능 4) 식별 가능
15. 기사는 편견을 제거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1) '마음의 감기' 2) 치료 가능 3) 예방담론 4) '누구나 (결릴 수 있다)

국문초록

〈주요 용어〉: 우울증, 담론 분석, 매스미디어, 정신질환, 생의학, 의료인류학

최근 한국 사회에서 자살률 증가와 더불어 우울증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사회 문화적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한 가지 시도로서 지난 20년간 한국 신문기사에서 우울증을 다루어 온 방식과 시기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본다. 연구자는 1991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한국의 다섯 개 주요 일간지(조선, 동아, 국민, 경향, 한겨레)의 전체 기사 중 제목에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사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검색 프로그램(KINDS)을 이용하여 선별하였으며, 그 결과 총 958개의 기사를 획득하였다. 이 기사들을 정해진 유목에 따라 Excel 2007을 이용하여 분류하고 빈도 분석한 후 근거이론에 기초하여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세 가지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지난 20년간 제목에 우울증을 포함한 기사 수는 1996년과 2005년 두 번의 시기에 크게 급증하였으며, 이러한 급증의 배경에는 국가적 규모의 사고와 IMF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1996) 및 유명 연예인의 자살사건(2005)이 주된 관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지난 20년간 우울증 기사는 우울증 환자의 ‘폭력적’이고 ‘비정상적’인 사건을 드러내는 ‘사건 보도’의 성격으로부터 점차 질병으로서의 우울증의 개념과 치료법 및 예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의 성격으로 변화되어 왔다. 셋째, 지난 20년간 우울증의 생물학적/유전적 요인이 전체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에 따른 변화가 별로 없었지만, 생물학적/유전적 요인을 언급한 기사 수의 변화는 생의학적 연구결과를 포함한 기사 수나 정신의학 관련 전문가 의견이 인용된 기사 수의 변화와 대체로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러한 자료 분석 결과로부터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문화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난 20년간 한국의 매스미디어 담론 속에서 우울증은 단순히 의학적 질병을 넘어서 현대 한국인의 일상적 위험과 불안을 상징하는 사회적 은유로서 사용되고 있다. 둘째, 대중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자 하는 매스미디어 담론의 특성으로

인하여,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우울증 기사는 특별히 집중 보도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후 매스미디어를 통한 우울증 담론의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점차 '정보 제공'의 성격을 띠고 나타나는 우울증 기사들은 개인의 지속적인 자가진단과 관리에 의해서 우울증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거나 조기 치료할 수 있다는 사고를 확산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신자유주의적 통치 담론을 지지·배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우울증에 관한 기사가 점차 '과학'이나 '건강'과 같은 전문 섹션에서 다루어짐에 따라, 최신 과학적 실험 결과를 강조하는 생의학적 관점은 특히 정신의학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매스미디어 담론 속에서 확산되고 있다.

Abstract

〈Key words〉: depression, discourse analysis, the mass media, mental illness, biomedicine, medical anthropology

The Changing Discourse of Depression and Its Cultural Implications in South Korea: An Analysis of Newspaper Coverage between 1991 and 2010

Lee, Hyeon Jung*

A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sociocultural factors that have influenced the increasing degree of social concern with depression today, this paper examines how daily newspapers in South Korea have treated depression during the last two decades.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using KINDS(Korean Integrated Newspaper Database System), from which I selected a total of 958 articles with a title including the word “depression” from five daily newspapers between January 1, 1991 and December 31, 2010. The selected articles were coded and analyzed qualitatively using content analysis.

The analysis provided three main findings: First, over the last two decades, the number of the articles with a title including the word “depression” has remarkably increased, particularly in two contexts. The increase is associated with widespread socioeconomic anxiety in the mid-1990s, while it is also related to the shocking news of a celebrity’s suicide motivated by depression in the mid-2000s. Second, articles about

* Postdoctoral Researcher, Institute of Cross-Cultural Studies, SNU

depression have gradually focused more on the information about the disease and its treatment and prevention methods, rather than on recounting ‘violent’ and ‘exceptional’ episodes surrounding the victim of depression. Third, articles published during the last twenty years have contained a consistent yet smaller proportion of biological/ genetic causes of depression every year, compared with that of the social causes.

From these results, I discussed four cultural implications: First, in Korea’s mass media discourse during the last two decades, depression is represented not merely as a medical disease but as a social metaphor that symbolizes everyday risks and anxiety among the Koreans. Second, articles about a celebrity’s illness experience tend to contribute to spreading a new type of depression discourse in Korean mass media. Third, articles aiming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depression and its preventive methods reinforce neoliberal political discourse, particularly by spreading the idea that the risks of depression can be prevented by relevant self-diagnosis and self-management. Fourth, articles dealt with in the specialized section of health or science contribute to disseminating biomedical perspectives on depression, particularly by way of psychiatrist commentaries which highlight the results of recent scientific experiments.